電子工業日誌

〈1990. 5. 2～5. 31〉

5. 2 : 遞信部, '89년도에 전기통신공사, 데이타통신, 이동통신, 항만전화 등 4개 공중전기 통신사업자는 모두 3조 591억원어치의 매출을 기록했다고.

5. 3 : 遞信部, 무선기기 형식검정 대상기기를 시민무선국용 및 구내무선국용 무선설비까지 확대키로.

5. 3 : 工振廳, '90. 5. 14～25까지 30개 주요 工産品을 대상으로 품질표시 및 품질 보증실시 여부를 중점 조사키로.

5. 4 : 通信公, '90～'96년까지 5천 319억원을 들여 지역정보통신센터, 대도시광역통신망, 종합유선방송 등의 사업과 각종 통신 및 정보의 교환처리 등을 집약적으로 수행하는 종합정보통신단지인 텔리포트 등을 서해안 공업벨트에 구축키로.

5. 4 : 商工部, 5月중 200개 품목을 대상으로 消費財 수입 직권조사, 피해가 많은 상품은 수입제한, 관세율 인상 등 규제조치키로.

5. 8 : 通信公, 일반 전화망을 이용한 PC 통신망 서비스 시스템을 개발 12월중 종합시험서비스키로.

5. 9 : EC, 한국산 카스테레오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공식 개시 발표.

5. 10 : 遞信部, '96년 통신방송위성을 쏘아올리기 위해 통신방송 위성사업단을 설립하고 '90년말까지 衛星體 설계기술 기준을 확정키로.

5. 10 : 科技處, 일본·유럽 등 선진국과 소련, 중국 등 북방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금년중 적극적인 과학기술외교를 펼쳐가기로.

5. 10 : KIST, 서로 다른 부품을 식별 기판에 삽입할 수 있는 로봇시스템을 개발.

5. 11 : 政府, 통신사업의 점진적인 개방과 관련 기간통신 및 부가통신사업에 경제체제를 도입하되 특정인과 외국인의 소유지분은 제한키로.

5. 11 : 遞信部, CATV 사업의 활성화를 돕기위해 光CATV 전송모델을 개발하고 각종 설비의 표준화, 국산화를 추진키로.

5. 11 : 商工部, 7월부터 대형 냉장고 등 사치성 소비재 49품목에 수입가격 표시制를 실시키로.

5. 11 : 工振庁, '90년도 기술지도사업이 5. 8～5. 11까지 실시되고 있는데 1,030개 업체와 560명의 기술지도위원을 대상으로 각 지역별로 기술지도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올해 기술지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.

5. 14 : 工振廳, 국제표준화 업무를 전담키 위한「국제표준화」를 신설, 표준화관련 국제업무 강화키로.

5. 16 : 科技處 : '90년도 정부출연연구소의 유망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 기술개발형 중소기업 100개사를 새로 발굴, 현장 기술지도와 금융지원을 해주기로.

5. 17 : 商工部, 현재 49개 재벌그룹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 가운데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맡는 것이 경영과 기술발전노사관계 등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제품의 생산을 중소기업에 넘기도록 적극 추진키로.

5. 18 : 中振公, 업종이 다른 여러개의 기업이 정보기술, 기능, 노하우 등의 적극적인 교류를 위해 3단계의 기술융합화를 추진키로.

5. 18 : 通信公, 고속팩스, 화상전화 등 뉴미디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고속 정보교환회선(CSDN) 서비스가 '90. 8月부터 상용키로.

5. 23 : 中振公, 韓－핀란드 중소기업들은 산업협력 추진에 합의하고 교류를 시작, 그동안 핀란드 전문가 초청 기술지도 산업 협력세미나 등을 가진데 이어 기술인력의 파견연수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라고.

5. 24 : 관세청, 신속한 수출통관을 위해 수출검사대상 품목을 축소, 조정할 방침이라고.

5. 24 : 특허청, 동구권의 특허기술중 정밀화학 등 특정분야의 경우 활용 가능성이 무척 크다고 보고 이의 도입을 촉진시키기로.

5. 29 : 政府, 수입위주 정책기조 수정, 대미 수출·투자확대 추진키로.

5. 30 : 政府, 韓·蘇 수교의 중요관건중의 하나인 양국간 경제관계의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경협 확대방안 등을 마련키 위해 정부차원의 경제조사단을 소련에 파견키로.

5. 31 : IPECK·貿公, 발해만 인근 遼寧省, 山東省, 河北省 등 3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국 공단조성을 위해 기업대표로 구성된 조사단을 파견키로.